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민수기 6,22-27	제2독서	야고보 4, 13-15	복음	루카 12,35-40
--------	------	----------------	------	-----------------	----	----------------

“오늘날의 갈릴래아를 찾아”

인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산다는 것이 힘드시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풍요 속에 빈곤을 체험하며
 각박하고, 허전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인 예루살렘에서 첫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
 고 변방인 갈릴래아를 택하여 설교하시며 당신이 이 땅
 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
 다.

예수님이 가신 갈릴래아는 그 당시 정치적으로나 종교
 적, 경제적으로 대단히 천시받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
 면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어 사람들은 갈릴
 래아 사람을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라고 멸시하며 구
 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단정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
 엘의 국경 부근에 있던 갈릴래아는 바빌로니아, 페르시
 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등 외적의 침입이 많았
 고, 상권이 발달하여 교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 이민
 족들과의 접촉이 많아 다양한 인종이 살게 되고, 종교
 또한 순수하지 못했던 것이었기에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곳은 땅이 비옥하여 먹을거리와 물고기가 풍부
 하고, 자원이 많아 부요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는 사람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몇몇
 기득권층의 지주들이 수탈해 갔기 때문에 가난하였고,
 착취와 억압, 차별이 심해서 힘겹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
 다. 그래서 이곳은 억압의 땅, 고통의 땅, 시련의 땅,
 슬픔과 울분 원망으로 가득찬 땅이었습니다.

이런 갈릴래아에 오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 봉독을
 하시며 이사야 61,1-2의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
 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
 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
 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
 포하게 하셨다.” 는 것을 선포하시고 해설해 주시며 마지
 막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
 루어졌다.” (루카 4,21)라고 하시며 기쁜 소식과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기득권자들에게는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선동으로 보여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엿보
 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단
 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고 해방의 출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래아를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오늘
 날의 갈릴래아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이들, 눈먼 이들, 억압당하는 이들을 찾아 예수님이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 예수님처럼 내
 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해방의 삶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
 상하며 새겨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오늘날의 갈릴래아인들을 찾아 이들에게 내가 느끼
 고 체험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도록 합
 시다. 아멘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1월28일(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 1,265.00
			교 무 금	\$ 7,166.00
1월29일(수)	연중 제 3주간 수요일	오전 8시	사랑의 급식	\$ 173.00
1월30일(목)	연중 제 3주간 목요일	오후 7시30분		
1월31일(금)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오전 10시		
2월1일(토)	연중 제 3주간 토요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8,604.00
2월2일(주일)	주님 봉헌 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22명 성인: 186명
교무금 봉헌자	장현재,이운로(1-12)김재선(1-6)송돈희,고원석,구준모,박문교(1-3)김응환,원승남,이운상,박병수,임상일, 장석자(1-2)윤재경,금외주,전우성,김정홍,안기창(1)장현철(10-12/2024,1-3/2025)정훈(5-12/2024)			

미 사 지 향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모임(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하느님과 결합시키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미사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행위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봉헌됩니다. 이를 위해 사제는 항상 교회 전체를 위해, 산 이와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제는 신자들이 요청한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언가(교회의 발전과 세계 평화 등)를 위해서 미사 지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 친척, 지인들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지향을 둘 수 있습니다. 관행상 산 이를 위한 지향으로 드리는 미사를 생미사,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을 위한 지향으로 드리는 미사를 연미사라고 합니다. 사제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이 미사는 ○○○를 위한 생미사로 봉헌합니다.” 또는 “이 미사는 ○○○ 영혼을 위한 연미사로 봉헌합니다” 라는 개별미사 지향을 밝힙니다. 이렇게 지향을 밝히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사제가 미사 지향을 올린 신자들을 위해서 사목적으로 덧붙이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특정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고자 할 때 교회와 사제에게 바치는 예물을 ‘미사예물’ 이라고 합니다. 미사예물과 함께 미사 지향은 성당 사무실에 가서 원하는 날짜와 지향을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사예물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그리고 정성을 담아 봉헌하시면 됩니다.

미사예물을 통해 신자들은 미사 중에 성부께 자기 자신을 봉헌한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으며, 또 그리스도에 의하여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와의 일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것이고 교회 교역자의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946조).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교회법 945조 2항)는 내용처럼 액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즉, 예물이 아예 없어도 사제는 지향을 갖고 미사를 거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미사 중 ‘교중 미사’ 는 본당 주임사제가 미사예물 없이 본당의 모든 신자를 지향으로 의무적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과 추석 때 조상들을 위해 공통 지향으로 미사예물을 받고 합동 위령 미사를 거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 지향을 올리며 미사에 더욱더 깊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인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총을 청합니다.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님의 글을 발췌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사무장 201-774-7489/전례부장 916-990-6531)●

구분	봉 헌 자	지 향	구분	봉 헌 자	지 향
연		설 위령미사	생	익명	박봉준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영육건강
			생	김평옥 모니카	아들 Shawn Hovey 영육건강
			생	임그라시아	이영숙 데레사 생일
			생	이종만 모세	이영숙 데레사 생일
			생	전우성 베드로	전윤구 그리스토퍼 영육건강
			생	진엘리사	성다미아노 빠른 쾌유
			생	김임직 빅토리아	손녀 수현의 생일 / 가정 감사
			생	송영숙 크리스티나	차영미 카타리나 건강회복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 오늘 미사는 1월 29일 설 미사로 봉헌됩니다.

1. 설 행사

일시: 1월 26일(주일)

✓미사후에는 친교실에서 점심식사와 다채로운 행사가 있습니다. (웃놀이, 제기차기 등)

✓설 점심메뉴 : 육개장

준비 : 여성단체

2. 초축복식 (주님봉헌축일) 안내

일시: 2월2일(주일)

미사중에 있습니다.

1년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를 봉헌해 주시고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성물방에 신청바랍니다.

3. 봉성체

일시 : 1월 30일 (목) 9시 30 출발

봉성체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전례부에 신청바랍니다.

4.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노공소) 미사

일시: 2일(주일) 성당에서 오후1시 출발

참여단체: 공소부

리노공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5.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 1일(토) 오전10시30분.성당

(일반 신자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사후 성당에서 요셉회.안나회가 있습니다.

6.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6일(목) 저녁8시. 성당

저녁7시(목주기도) 저녁7시 30분(찬미)

저녁8시(미사, 성시간 및 안수예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본당 구역장 회의

일시: 2일(주일) 교중미사 후 엘리사벳방

각 구역장님께서서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8. EPISTREPHO 교구 청년 CONFERENCE

대상 : 청년 리더쉽 / 주일학교 봉사자

일시 : 2/1(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Presenta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Parish

참가비 : \$20

9. 단체활동

복지부 : 1일(토) 오후 3시 식재료준비 및 모임

2일(주일) 오전 8시 홀리스 음식 봉사

연령회 : 2일(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울뜨레아 :2일(주일) 교중미사후. 구사제관

10.사랑의 급식 안내(창조주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일시 : 2일 (주일) 모든미사

메뉴 : 뼈다귀우거지국 금액 : \$5

도네이션 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11.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 장영수요셉, 장엘리사벳 \$300

도네이션 : 장대석 요셉 유가족 가정 \$200

12. 2025년 견진 신청

일시: 5월 25일 (주일)

1월 26일 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대상 : 만 12세 이상 견진을 받지 않은 신자

교육 : 성령 세미나로 대체 (5월초)

13.공지사항

그동안 리노공소로 후원되었던 사랑의 급식 수익금이 올해부터는 본당 주방 업그레이드 공사 비용으로 후원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본당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 24년도 교무금 완납을 부탁드립니다.

교무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성당 유지/보수/발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Donation Statement 발급 (사무실)

2024년 텍스리턴 관련 Donation Statement 필요하신 분께서는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화답송					
	전례봉사	설 (1/26)	주님 봉헌 축일(2/2)	연중 제5주일(2/9)	연중 제6주일(2/16)
미사해설	정미정	오민정 / 이해련	곽유경 / 최금주	지혜진 / 김진영	
독서	9시	김규철 / 김희정	윤지명 / 박예린	황건영 / 허준희	윤지명 / 박예린
	11시		임정남 / 양방림	안강순 / 이서향	송돈희 / 조용주
복사	9시	윤지현 / 권오승	지마리 / 허준희	박예진 / 곽아인	김노아 / 오은수
	11시		박지은 / 권오승	윤지현 / 송돈희	김규철 / 김영준
헌금위원	창조주의 어머니Pr.	천상의 모후Pr.	셋별Pr.	창조주의 어머니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김나윤 프리스카(201-774-7489) E-Mail:prisca0118kim@gmail.com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1.2.3 Auto

정비/수리/각종부품교환
바디 수리/판금/페인트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916-807-4886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6509 Fruitridge Road
65th Street
Sacramento, CA 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HEZ JULIA

HANDMADE SOAP & CANDLES

*** 쉐 줄리아 공방 ***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

박지은(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된장.도토리 국수.참기름.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